‘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를 바라보다’

정읍시, 11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정읍시는 오는 11일, 동학농민혁명교육관에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를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청의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가 공동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관한다.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동학농민혁명기록물뿐만 아니라 해외 유사 기록유산들의 가치와 의미를 비교 분석한다.

기조 강연은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서경호 위원장이 ‘세계기록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주제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 등재 소위원회 위원장인 헬렌 자비스(Helen Jarvis)가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사적 가치와 의미’를 발표한다.

학술대회의 1부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세계기록유산’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진다.

프랑스 기록박물관의 셀린 파르세(Celine Parce)는 ‘프랑스인권선언 기록물’에 대해 발표하며, 독일 루터박물관의 미르코 구트자르(Mirko Gutjahr) 관장은 ‘루터 종교개혁 기록물’의 역사적 중요성을 동학농민혁명기록물과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대학교의 아이자르킨 코조베코바(Aijarkyn Kojobekova)는 아시아의 세계기록유산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그 가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를 바라보다’ 포스터

2부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사적 가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다. 배항섭 성균관대 교수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내포된 가치와 의미를, 조재곤 서강대 교수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구성과 특징을, 홍성덕 전주대 교수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해외의 세계기록유산 보유국 및 소장 기관과의 국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사적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사적 위상이 더욱 바련될 수 있도록 기념재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 특별전시를 준비해 혁명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져 나가겠다”고 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1894년에서 1895년 사이 조선에서 발발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185건의 기록물로, 지난해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는 조선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자유, 평등,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 역사적 기억의 저장소로서, 그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기록물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이를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신관 사또 부임 행차 공연

7일~11월 매주 토요일 흥겹고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

남원시 대표 문화관광 상설프로그램인 신관 사또 부임 행차 공연이 상반기 행사 후 휴식을 마치고, 오는 9월 7일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하반기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공연은 남원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과 함께 보고 즐기는 체험형 퍼포먼스로 90여 명의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운영되고 있으며, 사랑의 광장에서 광한루원까지 행차를 재현하여 흥겹고 특색있는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취타대와 깃발 도열, 육방 퍼포먼스, 기생들의 댄스 등 춘향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구성하였으며, 퍼레이드 진행 후에는 기생, 사또 등과 함께 하는 관광객 포토타임 등의 이벤트 행사도 진행된다.

공연팀은 매년 2월 공연단을 구성, 3월 역량 강화 교육, 4월~6월 상반기 공연, 9~11월 하반기 공연 일정으로 매년 공연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높은 퀄리티로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초청받고 있다.

5월에는 남원의 대표축제 춘향제 거리 퍼레이드에서 풍성한 길놀이를 이끌었으며, 10월에 있을 흥부제와 문화의 날 행사에 참여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코믹 연극 ‘그놈은 예뻤다’ 20일 개최

개그맨들이 만들고 연기하는 코믹 연극 ‘그놈은 예뻤다’가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코미디 연극 ‘그놈은 예뻤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에 상경한 대학생 ‘두성’이 비싼 집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비교적 저렴한 여성 전용 공유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여장을 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려낸 연극이다.

개그맨 정태호, 김대성, 나현영, 심정은, 유영우 배우와 게스트로 임재백이 출연해 코미디와 다양한 재치를 순발력으로 관객들에게 배꼽 잡는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준미 교육문화 과장은 “인기 개그맨들이 출연해 펼치는 유쾌한 연극 공연을 관람하고, 그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공연을 유치해 김제시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람권 예매는 오는 10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 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추석 공연 ‘추풍명월’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17일 오후 3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추석 특별 공연 ‘추풍명월(秋風明月)’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태평소와 관현악의 흥겨운 협연으로 시작하여, 강강술래와 창극, 판굿연희 등 다양한 국악 공연을 통해 추석 명절의 풍성함과 우리 전통 국악의 아름다움을 관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공연 당일 오후 1시부터 사전 행사로 윷놀이,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과 소원성취 기원 나무에 소원 적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전통 다과와 차 시식 행사를 운영해 명절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예약 및 공연 소식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 및 전화(063-620-2329)로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브리콜라주:그러모은 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체류형 관람 프로그램 시범 운영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오는 28일까지 체류형 관람 프로그램 ‘브리콜라주:그러모은미술관(전북미술주간)’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 시·군 공립미술관을 방문해 전시 관람과 전시 연계 체험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근 관광지를 방문해 문화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1박 2일과 당일 공공미술 투어프로그램, 스탬프 투어로 꾸며졌다. 공공미술 투어프로그램은 도립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제로 진행되며, 스탬프투어는 각 미술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스탬프북을 수령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6~7일 1박 2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무주 반딧불축제와 고택아트페스타 등 문화관광축제와 연계, 예술과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애선 관장은 “전라북도 공립미술관이 보유한 지역미술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또 우리지역이 가진 예술적 요소를 관광과 결합해 도내 외 관람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1박 2일 프로그램은 마감됐으며, 오는 28일 진행되는 당일 프로그램은 20일까지 도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 2차 전문가 심사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지난 4일 ‘다이브 투 퓨전 : 더 비기닝’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 2차 전문가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심사에는 작곡가 윤일상과 전 씽씽밴드 멤버이자 무형문화재 57호 경기민요 이수자인 국악인 이희문, 국악계 신선한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젊은 소리꾼 장서윤, ‘소리의 탄생’을 연출한 전주MBC PD 박규현 등이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공모로 실시한 공모전에는 총 116곡이 접수돼 온라인으로 1차 전문가 심사를 열흘 간 진행했다. 심사위원의 의견을 취합해 26개 곡을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이날 팔복예술공장에서 2차 전문가 심사를 진행, 창작성, 대중성, 목적성 등을 평가해 4개곡이 선정됐다.

선정된 4곡은 오는 7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리는 청중평가 대상곡으로 청중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해 대상과 우수상이 결정된다. 청중평가단은 총 100명 중 80명은 지난 8월 30일까지 모집하고, 20명은 현장접수를 받아 진행한다. 시민 100인의 선택을 받은 대상작은 미래문화축제 ‘팔복; The Beginning’의 CM송이자 문화도시 전주를 대표할 곡으로 활용되며, 수상곡은 9일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심사를 위해 직접 전주까지 온 심사위원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돼 더 신뢰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이번주 토요일에 있을 청중평가와 문화도시 전주를 빛낼 수상곡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다이브 투 퓨전 공모전은 퓨전국악 분위기를 AI 작곡 플랫폼이 얼마큼 구현하는지 실험해보는 장”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